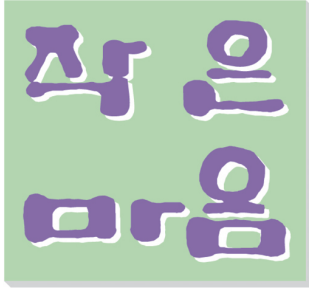


예수님을 닮아 사는 우리들의



제2387호 2025. 2. 9. 연중 제5주일

제1독서 : 이사야 예언서 6,1-2 7.3-8

제2독서 :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5,1-11 또는 15,3-8.11

복음 : 루카 복음서 5,1-11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chota_littlemm@naver.com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

©Sr.WonGabriela

(2023년 1월 14일 요한 23세 교황 공동체 협회 소속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하신 교황님 말씀)

그림 - 가브리엘라 수녀님



오늘의 미사

+ 화답송

◎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 알렐루야.

+ 영성체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우리 주일학교 이야기



창4동 성당 친구들에게 봄이 왔어요!!

창4동 성당 주일학교 친구들은 2024년 5월 18일 서울 창포원으로 봄 소풍을 다녀왔어요! 그날은 아이들의 환한 웃음처럼 날씨도 맑고 화창했답니다.

친구들은 조별로 산책하며 사진 미션을 했어요. 점프 사진, 그림자 사진, 성경 구절에 어울리는 사진을 찍으며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었고, 나뭇잎과 꽃으로 예쁜 프레임도 꾸며 보았어요.



이후에는 종이비행기 날리기, 풍선 달리기, 보물찾기 같은 신나는 게임을 하며 서로 더 가까워졌어요. 자유 시간에는 비눗방울 놀이, 줄넘기, 공놀이를 하며 신나게 뛰어놀았답니다. 유치부 친구들부터 초등부 고학년 친구들까지 모두 땀 흘리며 즐겁게 놀고 난 뒤에는 자모회 어머니들이 준비해 주신 맛있는 점심을 먹었어요. 돌아오는 길 내내 소풍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웃음이 가득했던 주일학교 친구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답니다.

이번 창포원 봄 소풍은 자연 속에서 어울리며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느껴볼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2024년 5월의 특별한 추억을 가슴에 간직하며, 다가오는 2025년 봄에도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부님 말씀



2지구 성산2동 성당
조인규 마르첼로 신부님

두려워 말고 용기를 내 보아요!

✦ 찬미 예수님!

주일학교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 복음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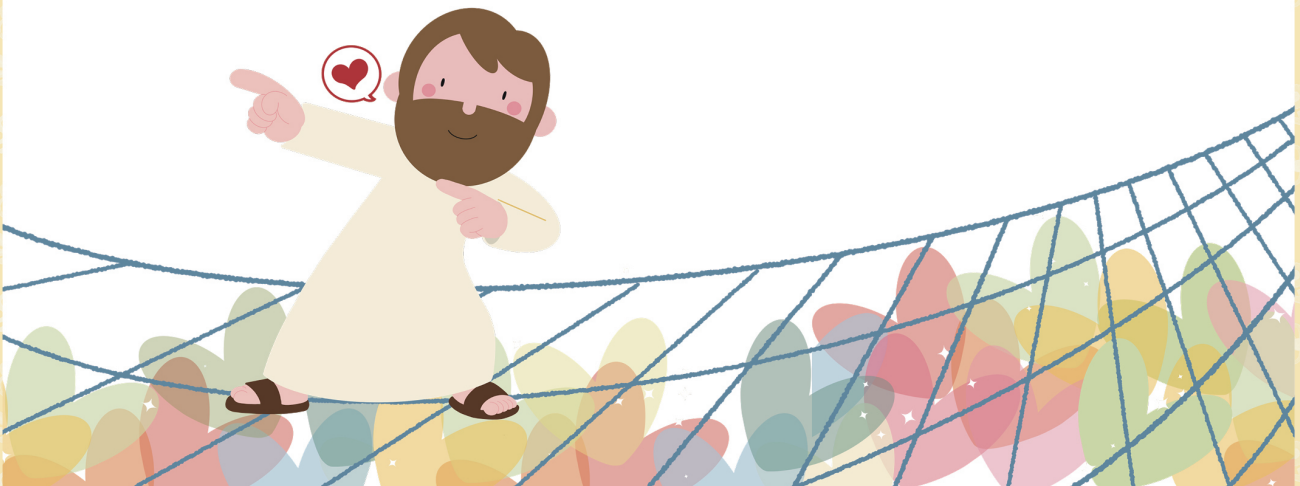
어부 시몬은 밤새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많이 속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은 이미 열심히 노력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한번 더 해 보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시몬은 너무 놀라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물은 시몬이 가장 익숙하고 믿던 도구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놓았을 때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때로는 포기하기 어렵고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용기를 내 보아요! 익숙한 생활 방식이나 생각, 또는 우리가 고집했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과 기쁨을 가득 선물해 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는 언제나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과 힘이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랄게요~!



제29회 작은마음 잔치 수상작



하느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들

수유동 성당 3학년 장소울 라파엘라

늘 예수님

나는 바다에 갔어요.
철썩철썩 파도소리는
예수님 말씀으로 들려요.

나는 산에 갔어요.
살랑살랑 바람은
예수님 손길로 느껴져요.

나는 하늘을 보았어요.
구름 속에 빠알간 해는
예수님 몸으로 보여요.

늘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 ♥
나도 늘 예수님 곁에 있을래요.

늘 예수님

고척동 성당 2학년
김예리 플로렌시아

나는 바다에 갔어요.
철썩철썩 파도소리는
예수님 말씀으로 들려요.

나는 산에 갔어요.
살랑살랑 바람은
예수님 손길로 느껴져요.

나는 하늘을 보았어요.
구름 속에 빠알간 해는
예수님 몸으로 보여요.

늘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
나도 늘 예수님 곁에 있을래요.